

# KWDI

## 해외통신

2020년 2월 1차 (2020.2.1 ~ 2.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영국 UNITED KINGDOM



#### 영국 법조·정치·경제계, 여전히 남성 편중 현상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여성단체 포셋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는 2020년 1월 13일 '2020년 성별 권력 지수(2020 Sex and Power Index)'를 통해 정치, 법조, 경제 등 사회 각 분야 주요 직군의 성별 분포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영국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조인, 정치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업의 경우는 남성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요 직군에 종사하는 흑인이나 아시아인 등 소수 인종 출신 여성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대법관은 남성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현재 대법관 12명 중 단 2명(17%)이 여성이며, 2009년 대법원이 출범한 뒤 소수 인종 여성이 대법관을 맡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 74세인 레이디 헤일(Lady Hale) 대법원장이 올해 1월 임기를 마감하고 퇴임할 예정이어서 전체 여성 대법관 숫자는 1명으로 줄어든다. 영국의 2심을 다루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과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1심 판결을 다루는 고등법원(High Court of England and Wales)의 여성 판사 비율은 각각 23%, 27%에 불과해 남성 판사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경제계에도 남성 쏠림 현상이 공고했다. 영국 주가지수인 FTSE에 상장된 100대 기업의 여성 최고 경영자(CEO)는 6명에 불과했고, 이들 기업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도 32%로 낮은 상황이다. FTSE 1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패션 기업 버버리(Burberry)로 전체 임원의 61.3%를 여성이 차지했고, 가정용품 업체인 Next가 53.9%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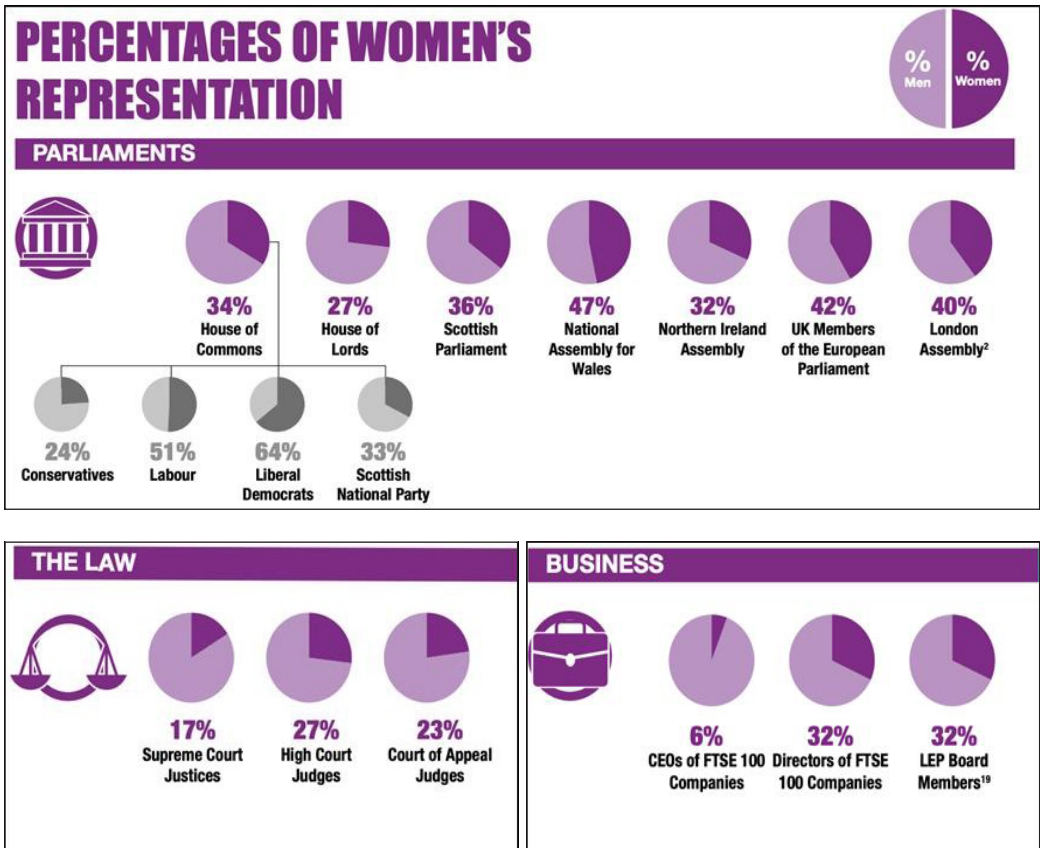
#### 참고자료

- Fawcett Society(2020.1.13.), "2020 Sex and Power Index reveals men continue to dominate every sector of UK public life, politics and business Equality" "still generations away",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fawcetts-updated-2020-sex-and-power-index-reveals-men-continue-to-dominate-every-sector-of-uk-public-life-politics-and-business> (검색일: 2020.1.25).
- Fawcett Society(2020.1.13.), "2020 Sex and Power Index", <https://www.fawcettsociety.org.uk/Handlers/Download.ashx?IDMF=bdb30c2d-7b79-4b02-af09-72d0e25545b5> (검색일: 2020.1.25.)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계 역시 남성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하원(House of Commons) 의원 650명 중 여성 의원 비율은 34% (220명)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총선에서 영국 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여성 의원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남성 의원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정당별로 여성 의원 비율이 들쭉날쭉한데, 노동당(Labour)은 전체 202명 중 104명(51%)이 여성으로 당내 여성 의원 비율이 남성을 앞지른 상태이나, 다수당인 보수당(Conservative)은 전체 의원 365명 중 여성 의원 비율이 24% (87명)에 불과하다.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은 전체 의원 11명 중 7명이 여성으로 의석 64%가 여성 의원으로 꾸려졌고, 스코틀랜드 독립을 주장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은 48석 중 16석(33%)을 여성이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의원 중 흑인과 같은 소수 인종 여성 의원 비율은 현저하게 낮는데, 전체 여성 의원 220명 중 37명(17%)이 소수 인종이며, 이중 대다수인 29명이 노동당 소속 의원이다.

포셋 소사이어티 샘 스메더스 대표는 “이 데이터는 영국이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는 영국 여성들의 재능과 능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The Guardian(2020.1.13.), “UK still ‘generations away’ from equality in top jobs, study show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an/13/uk-still-generations-away-from-equality-in-top-jobs-study-shows> (검색일: 2020.1.25).
- CNBC(2019.11.13.), “Britain’s top 100 companies have just 6 female CEO’s, study finds”, <https://www.cnn.com/2019/11/13/britains-top-100-companies-have-just-6-female-ceos-study-finds.html> (검색일: 2020.1.25).



### <영국 정치, 법조, 경제계 여성 비율>

자료: Fawcett Society(2020.1.13.), “Fawcett’s 2020 sex and power index: men continue to dominate every sector of UK public life”.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fawcetts-updated-2020-sex-and-power-index-reveals-men-continue-to-dominate-every-sector-of-uk-public-life-politics-and-business> (검색일: 2020.2.18.)

## 프랑스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과거 코치로부터 성폭행 피해 폭로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프랑스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약했던 사라 아비트볼(Sarah Abitbol)이 과거 선수 시절 겪었던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비트볼 선수는 2000년 세계 선수권 대회 페어 종목 동메달, 유럽 선수권 대회 은메달 및 동메달 총 7회 수상, 그리고 프랑스 선수권 대회 10회 우승을 기록한 바 있는, 프랑스 피겨스케이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선수이다.
- 아비트볼 전 선수는 과거 1990년-1992년, 당시 코치였던 질 베이에르(Gilles Beyer)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녀 나이 15세에서 17세 사이였던 때이다. 이는 최근 그녀가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판하고, 그녀가 시사 잡지 롱스(L'Obs)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 아비트볼은 이전에도 베이에르 코치의 만행에 대해 알린 바 있으나, 당시 관계 당국이 이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변의 일부 사람들은 그녀에게 필요한 약이 있으면 먹고, 조용히 지나가는 게 낫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느덧 30여 년 가까이 지났지만, 44세가 된 그녀는 그 충격을 잊지 않았으며, 우울증약을 복용하며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 그녀의 성폭행 관련 언론폭로 이후 지속적으로 취재요청을 받고 있는 베이에르 전 코치는 사라 아비트볼 선수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아비트볼 선수에게 매우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과거 사건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표현했고, 이에 대해 아비트볼 선수는 추가 인터뷰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였던 게 아니라 성폭행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당시 관계자들에게도 과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 더 나아가 다른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세 명도 10대 선수 시절 베이에르 및 다른 코치들로부터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코치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지난 1월 말, 미성년자 선수 네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테니스 코치 앤드류 게디스(Andrew Geddes)에게 법원에서는 18년형을 선고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바 있다. 그리고 사라 아비트볼 선수가 과거 성폭행 피해사건을 폭로하던 당일, 프랑스 내 유명 스포츠 전문 일간지 르퀴프(L'Equipe)에서는 스케이팅, 수영, 테니스 종목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문제를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 내 프리랜서 기자들로 구성된 연합 ‘We Report’는 자체 조사 결과, 2019년 말 기준 약 28여 개 스포츠 종목에 걸쳐 77개의 성추행 사건, 최소 약 27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15세 이하라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 참고자료

- BBC (2020.02.05.), “Sarah Abitbol: French ice skating head refuses to resign”,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383835> (검색일 : 2020.02.07.).
- France 24 (2020.01.29.), “French ice skating coaches face multiple rape claims”, <https://www.france24.com/en/20200129-french-ice-skating-coaches-face-multiple-rape-claims> (검색일 : 2020.02.07.).
- Le Parisien (2020.01.31.), “Beyer reconnaît des «relations inappropriées» avec Sarah Abitbol, la justice se penche sur son cas”, <http://www.leparisien.fr/sports/violences-sexuelles-dans-le-sport-gilles-beyer-reconnaît-des-relations-inappropriées-avec-sarah-abitbol-31-01-2020-8249664.php> (검색일 : 2020.02.07.).
- Le Parisien (2020.01.30.), “Sarah Abitbol : «Il profitait de venir dans la nuit quand je dormais avec mes peluches»”, <http://www.leparisien.fr/sports/il-profitait-de-venir-dans-la-nuit-quand-je-dormais-avec-mes-peluches-raconte-la-championne-de-patinage-sarah-abitbol-30-01-2020-8248242.php> (검색일 : 2020.02.07.).

최근 프랑스 스포츠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해온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들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록사나 마라시노비(Roxana Maracineanu) 체육부 장관(Minister of Sports)은 이번 사건 이후 모든 프랑스 내 운동협회들이 선수들, 특히 소속 미성년자 선수들의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라시노비 장관 본인 역시 전직 수영선수로 활약했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배영 200m 은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다.

검찰에서는 이번 폭로 이후, 베이에르 및 다른 코치들의 미성년자 선수 상대 성범죄 여부에 대해 공개수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으로 체육계 성폭행 및 성추행 문제 근절을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 캐나다 CANADA



### 캐나다 퀘벡주, 인권단체들 중심으로 성노동의 비범죄화 요구 확산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2020년 1월,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성노동자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으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캐나다 가석방위원회(The Parole Board of Canada)는 2004년 한 여성을 살인한 후 수감 중이던 유스타치오 갈레세(Eustachio Gallese)에게 가석방을 허가하면서, 그에게 가석방 기간 동안 여성을 만날 수는 있으나 오직 성적 욕구 충족의 목적으로만이라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그러나 가석방을 허가받은 범인은 퀘벡의 한 호텔로 22세의 성노동자를 불러들여 살해한 후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2020년 2월 4일 신민주당의 로렐 콜린스(Laurel Collins)는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건이 잘 보여주듯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현행법이 성노동자(Sex worker)들을 더욱 위험으로 내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하원에는 성노동 또한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성노동자들의 발언이 있었으며, 이러한 성노동 합법화 의견들에 대해 보수당 하원 비어슨(Viersen) 의원이 콜린스 의원에게 매춘이 정당한 노동이라면 본인은 그 일을 해볼 생각을 해보았냐고 발언해 여론의 웃매를 맞았다. 콜린스 의원을 비롯한 신민당 의원들은 퀘벡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를 압박하여 성매매 규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당은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 참고자료

- NBC News(2019.06.10.), New York state lawmakers introduce bill to decriminalize sex work, url: <https://www.nbcnews.com/news/us-news/new-york-state-lawmakers-introduce-bill-decriminalize-sex-work-n1015891> (검색일 : 2020.02.09.).
- Global News (2019.10.03.), Demands grow for Canada to decriminalize sex work after the election, <https://globalnews.ca/news/5970549/canada-sex-work-decriminalization/> (검색일 : 2020.02.09.).

현재 캐나다에서 성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나 성 구매와 성매매 광고 행위를 불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지난 보수당 정권에서 2014년 가결시킨 법안 Bill C-36(The 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이다. 그간 성노동자들은 이 법률 자체가 '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 그들의 노동환경을 범죄화'시켰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음지로 내몰아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들은 또한 해당 법률이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개인의 안녕권(security of the person)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캐나다 총선 시점 동안 성 건강과 권리 행동 연대(Action Canada for Sexual Health and Rights)는 새 정부가 성노동을 비범죄화(decriminalize sex work)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캐나다의 150여 개 인권 단체들이 공동 서명한 성명을 통해 현행법은 사실상 성노동을 모든 면에서 범죄화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성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한 사회적, 법적, 성 건강에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한다고 성토했다. 이 성명은 또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통해서만이 성노동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담보할 수 있고 고립되지 않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ill C-36 도입 이전 캐나다 형법은 "외설적인 건물에서 성노동(sex work)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성 노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년 캐나다 고등법원은 당시 법 규정이 오히려 위험한 매춘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만든다고 판단, 당시 집권당이었던 보수당 정부로 하여금 입법화를 요구하였다. 요컨대 C-36의 도입 의도는 성노동자와 지역사회 안전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캐나다 언론은 2014년 성노동이 불법화된 이후 법을 집행함에 있어 성노동자들과 경찰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원주민, 흑인, 트랜스, 이주 성노동자 등 소수자들을 겨냥한 폭력사건들이 늘어났으며,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성노동자들이 단속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객과 충분히 사전 협상을 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고객과 동승하여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다. 경찰은 인권의 이름으로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지로 성을 상품화하는 성노동자들과 강제로 성매매에 몰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함께 규제함으로써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2014년 트뤼도 총리를 포함한 자유당 의원들은 C-36의 입안에 반대하는 표를 행사하였고 이후에도 해당 법안에 비판을 해왔으나 집권 후에는 뚜렷한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집권 후 달라진 정치적 계산 때문에 중요한 이슈를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9년 캐나다 총선에서 녹색당 만이 성매매 합법화 이슈를 공약으로 다루었다.

한편 합법화 요구가 거세지는 데는 지난 6월 뉴욕주의 성매매 합법화 법안 상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매매 관련 과거 전과까지 삭제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몇몇 미국의 대권주자들까지 지지를 보내면서 캐나다의 성매매 합법화 운동 또한 탄력을 받았다. 캐나다 내부에서의 압력도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많은 관심 속에 국책 사업으로 시행된 살해되거나 실종된 원주민 여성 프로젝트(the National Inquiry into 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 또한 최종 정책제언의 일부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원주민 여성 등 소수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HuffPost(2020.02.04),  
Tory MP Arnold Viersen  
Apologizes For Asking NDP MP If  
She 'Considered' Sex Work,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arnold-viersen-laurel-collins\\_ca\\_5e39d8dfc5b6f083412070c4](https://www.huffingtonpost.ca/entry/arnold-viersen-laurel-collins_ca_5e39d8dfc5b6f083412070c4)  
(검색일 : 2020.02.09.).





## 스웨덴 영화협회, 영화분야 성평등 달성을 위한 페미니스트 등급 시스템 운영 중

홍희정 울산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스웨덴 최대의 영화관련 단체인 ‘스웨덴 영화협회(Svenska Filminstitutet: 약칭 SFI)’는 2013년부터 주제, 배우 역할, 스텝 비중 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성평등 달성 목적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등급시스템(Feminism rating for films, 이하 등급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등급제 도입 이후 SFI는 스웨덴 문화부와 협력하여 매년 성평등 영화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2020년 칸영화제를 겨냥하여 ‘20회에는 50대 50(Fifty-fifty by the 20th Anniversary)’이라는 구체적 슬로건을 발표하여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 등급제는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여성 혐오, 영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등장하는 여성 나체와 섹스 장면,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욕설 등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등급을 매긴다. 이 시스템은 미국 만화가인 앨리스 벡델(Alison Bechdel)이 1985년에 발표된 ‘Dykes to Watch Out for’를 만화 속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을 관찰한 후 이를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한 벡델 테스트(bechdel test)<sup>1)</sup>에 기반하고 있다. 벡델 테스트는 이 후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었는데, 특히 영화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실제 남성중심의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수치화함으로써 영화계의 성 편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 SFI는 이러한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에 대해 성평등성을 획득했다는 의미에서 A 등급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스웨덴 모든 영화에는 연령 등급과 함께 페미니스트 등급도 함께 표시되어 배포되고 있다.
- 처음 SFI가 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이 제도에 대한 찬·반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먼저 긍정적 반응으로는 스웨덴 영화감독인 엘렌 텔예(Ellen Teije)가 “그동안 영화에서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흥미진진한 도전을 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등급제로 인해 더 많은 영화관에서 진정한 여성의 이야기가 상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Equalisters 대표인 리나 토마스가드(Lina Thomsgard)는 더 로컬지와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누구든 상관없이 성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등급제를 옹호했다. 하지만, 잉마르 베르만 재단(Ingmar Bergman Foundation) 연구원인 얀 홀름버그(Jan Holmberg)는 등급제는 창작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었고, 영화평론가인 하이네크 팔라스(Hynek Pallas)도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도 그 영화가 반드시 사회를 평등하게 하거나 더 좋게 만듦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벡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환상적인 영화는 많다”라고 했다. 또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강하며, 국가 지원까지 받는 SFI가 영화 제작에 있어 특정 이념이나 요소를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영세한 영화 관계자들은 SFI의 지원 등을 받기 위해 SFI의 구미에 맞추고자 자기검열까지 강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참고자료

- 홍세영(2018), “스웨덴 여성영화인의 양성평등 정책과 법제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35
- Svenska Filminstitutet(2018), “Looking back and moving forward-Gender Equality Report 2017”
- Svenska Filminstitutet(2019), “The Money Issue-Gender Equality Report 2018”
- Svenska Filminstitutet(2014), “Filmmaret i siffror”
- Svenska Filminstitutet(2019), “Filmmaret i siffror”
- Sweden Launched A Feminist Movie Rating(2013.11.06.), url: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alisonvingiano/sweden-launches-a-feminist-movie-rating> (검색일: 2020.01.15.).
- A&E(2018.03.27.), “Swedish film CEO Anna Serner maps out future of women in film at BAMPFA talk”, url: <https://www.dailycal.org/2018/03/27/anna-serner-bampfa-talk/> (검색일: 2020. 01.15.).
- THE LOCAL(2013.11.08.), “Film critics divided on Swedish gender bias test”, url: <https://www.thelocal.se/20131108/film-critics-divided-on-swedish-gender-bias-test> (검색일: 2020.01.12.).
- THE LOCAL(2013.11.14.), “The woman who wants Sweden’s gender rating at a cinema near you”, url: <https://www.thelocal.se/20131114/lina-thomsgard-at-equalister-wants-swedens-gender-bias-rating-at-a-cinema-near-you> (검색일: 2020.01.15.).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도입된 등급제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실적을 보면 최초 시행된 2013년에는 제작 영화 중 약 34%가 벅델 테스트를 통과했으나, 2018년에는 약 65%까지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영화 제작자들이 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관련자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SFI 회장인 안나 서너 (Anna Serner)는 2018년 영화인을 위한 토크쇼에서 “영화 속에서 여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된다면 실제 사회에서도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등급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다. 그리고 영화계에서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 Alison Bechdel(2020),  
url: <http://dykestowatchoutfor.com/>  
(검색일 : 2020.01.12).
- Swedish Film Institute(2020),  
url: <https://www.filminstitutet.se/en/>  
(검색일 : 2020.01.12).

- 1) 벅델 테스트에서는 1. 영화에서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두 명 이상인가? 2. 이 여성들이 한 번이라도 대화하는가? 3. 그 대화 내용이 남자 주인공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주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